

광굴절 매질을 이용한 링 발진기에 관한 연구

김희덕, 김은수, 양인웅

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

A Study on Ring Oscillator Using Photorefractive Medium

Hee-Deog Kim,^{*} Eun-Soo Kim, In-Rung Young

Department of Electronics, Kwang-Woon University

Abstract

This paper described a theory of ring oscillation under the unidirectional oscillation condition using contradirectional two-wave mixing in photorefractive crystals,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ring oscillator using transmissive TWM. Despite the gain bandwidth of photorefractive TWM, ring oscillator can oscillate over a most range of cavity detuning unlike for conventional ring laser.

I. 서론

비선형 광학의 한 분야로서 최근에, 2광파 혼합으로 나타나는 비가역 에너지전달을 이용한 발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. 그 예로 1982년 White 및 Cronin-Golomb 등은 단방향 발진기(Unidirectional Oscillator)를 실험적으로 구성하였고, 1983년 Laeri 등은 2광파 혼합에 의한 링 발진기를 이용하여 범주 폭 실험을 하였다[1]. 최근에, Pochi.Yeh, Amnon Yariv 및 Sze Keung Kwong 등이 미소한 주파수 차이가 있는 전송형 2광파 혼합을 이용하여 발진에 대한 이론을 서로 다른 접근법으로 제시하였고,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[2,3,4]. 반사형 2광파 혼합에 대해서도 발진에 응용하는 연구가 시작되었으나, 아직 발진 이론은 보도되지 않았다. 1983년 Pochi.Yeh가 반사형 2광파 혼합을 분석하면서 링 발진기에서의 단방향 발진을 예언하였다[5].

따라서, 본 논문에서는 반사형 흐로그래픽 2광파 혼합을 이용하여, 광의 진행 방향이 단방향이 될 조건에서 링 발진 이론을 기술하고, 전송형 2광파 혼합을 이용한 링 발진 이론과 비교 및 검토해본다.

II. 01

II-1. 2광파 혼합

먼저 광굴절 결정체내에 두 간섭 빔(Coherent Beam) 사이에 상호작용을 검토하여 본다. 두 빔을 상호작용시키는 방법에는 전송형(그림 1,a) 및 반사형(그림 1,b)이 있으며, 이들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[5]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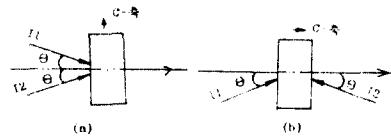


그림 1. 2광파 혼합 구조도
(a) 전송형 2광파 혼합
(b) 반사형 2광파 혼합

2광파 혼합으로 나타나는 비가역 에너지 전달을 링 발진기에 응용하기 시작하였으며, 전송형 2광파 혼합을 이용하여 단일빔으로 단방향 링 발진기(그림 2,a)를 White 등이 처음으로 실험으로 구성하였고, 그 후 단방향 링 발진기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이 보도되었다. 따라서, 여기서는 반사형 2광파 혼합을 사용한 링 발진기(그림 2,b)에 관하여 단방향 발진 이론을 전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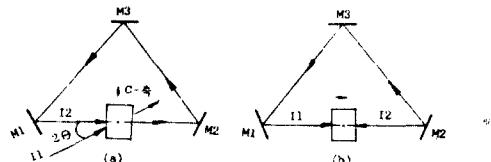


그림 2. 단방향 링 발진기
(a) 전송형 2광파 혼합 링 발진기
(b) 반사형 2광파 혼합 링 발진기

그림 2,b의 링 공진기내에 광굴절 결정체에서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파하는 거의 축퇴편 2광파 혼합을 분석해본다. 공진기 내에서의 두파의 전개를 다음으로 놓는다.

$$Bj = Aj(z) \exp[i(kjz - wjt)] + C.C. \quad j = 1, 2, \quad (1)$$

광굴절 매질에서($z = 0 \sim L$), $w1 \neq w2$ 인 두 파는 다음과 같은 세기 유도 격자를 발생시킨다.

$$n = n_0 + n_1 \exp(i\phi) A_1 A_2 \exp[iKz - \Omega t] / 2I_0 + C.C \quad (2)$$

$$L = I_1 + I_2 = |A_1|^2 + |A_2|^2 \quad (3)$$

n_l 은 실수이고 양수이며, ϕ 는 실수이다. $K=2k$, $\Omega=\omega_l-\omega_2$ 이다. 여기서, ϕ 및 n_l 은 각각 다음과 같이 있다.

$$\phi = \phi_0 + \tan^{-1}(\Omega\tau) \quad (4)$$

$$n_l = 2\delta n_e / [(1+(\Omega\tau)^2)]^{1/2} \quad (5)$$

여기서, τ 는 홀로그래픽 격자를 형성시키는 데 걸리는 시상수, δn_e 및 광 유도 저수 변화의 포화값이고 ϕ_0 는 빔 조사시의 결합체의 Nonlocal Response에 관련된 상수 위상 변이이다.

이제, n_l 에 대한 식(2)와 스칼라 바동 방정식 및 Standard Slowly Varying Field Approximation을 적용하여, 다음 결합파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.

$$(d/dz)I_1 = \gamma'(I_1 I_2)/(I_1 + I_2), \quad (6)$$

$$(d/dz)I_2 = \gamma(I_1 I_2)/(I_1 + I_2) \quad (6)$$

$$(d/dz)\phi_i = -\gamma' I_2/(I_1 + I_2), \quad (d/dz)\phi_i = \gamma' I_1/(I_1 + I_2) \quad (7)$$

$$\gamma = (2\pi n_l/\lambda) \sin\phi, \quad \gamma' = (\pi n_l/\lambda) \cos\phi \quad (8)$$

식(6)의 해를 구하고 흡수계수 α 가 있다고 가정할 때, 두파에 대한 전송도는 다음과 같다.

$$T_1 = I_1(L)/I_1(0) = (1+m)\exp(-\alpha L)/(1+m\exp(-\gamma L)) \quad (9.a)$$

$$T_2 = I_2(L)/I_2(0) = (1+m)\exp(-\alpha L)/(m+\exp(\gamma L)) \quad (9.b)$$

암의 γ 에 대해 $T_1 > 1$ 이고, $T_2 < 1$ 임을 알 수 있다. 그림 2,b로 부터 빔 I_1 이 흡수 손실을 극복할 정도로 증폭되고, 빔 I_2 는 소멸되는 특성을 이용하여, 단방향 발진조건을 찾을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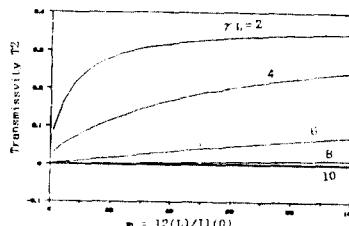


그림 3. 결합 강세 γL 에 대한 흡수로의 전송도 T_2 . 그림 3으로부터 T_2 가 0으로 접근되는 $\gamma L > 6$ 인 영역에서 확실히 단방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링 발진기를 구성할 수 있다.

위상 ϕ 과 ϕ_i 는 식(7)로부터 직설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. 식(7)에 식(9),(10)을 대입하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.

$$\Delta\phi_i = \phi_i(L) - \phi_i(0) = -\frac{\gamma'}{\gamma} \log \left[\frac{1+m}{m+\exp(\gamma L)} \right] = \gamma' L \quad (10)$$

여기서 발진이 되는 빔 I_1 에 대하여 광굴절 매질을 통과하는 위상변이는 다음과 같다.

$$2\pi n_l \Delta\phi + \phi_i(L) - \phi_i(0) \quad (11)$$

$\Delta\phi$ 는 부가적인 광굴절 위상 변이이다.

II-2 발진 주파수와 세기

기존 이득매설과 같지 않게 광굴절 2광파 혼합의 대역 폭은 매우 좁다. 단지 확산으로만 통작되는 광굴절 결정체(예, BaTiO₃)를 사용할 때 결합상수는 식(4), (5) 및 (8)에 따라 다음과 같이 된다.

$$\gamma = \gamma_0 / [1 + (\Omega\tau)^2] \quad (12)$$

여기서 $\gamma_0 = 4\pi \delta n_e / \lambda$ 인 측희 2광파 혼합인 경우에 결합상수이다.

파리미트릭 2광파 혼합 이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

$$G_L = T_1 I_1(L)/T_1(0) = (1+m)\exp(-\alpha L)/(1+m\exp(-\gamma L)) \quad (13)$$

따라서, $G_L > 1$ 인 증폭이 될 조건은 $\gamma > \alpha$ 이고

$$m(1-\exp(-\alpha L))/(1-\exp(-\gamma L)) > 1 \quad (14)$$

반사형 2광파 혼합을 이용하여 단방향 발진을 확실히 일으킬 수 있고, 발진 빔의 주파수가 Detuning률을 예상할 수 있다. 이러한 현상들은 광굴절 결합으로 나타난 부가적인 위상변이 식(10)로서 설명될 수 있다. 이 위상변이를 발진 주파수 Detuning의 함수로서 몇 가지 m 값에 대하여 그림4에 주어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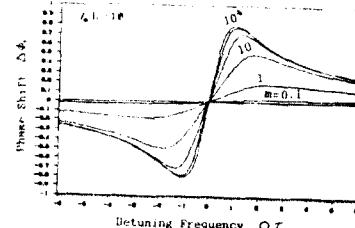


그림4. m 값에 대한 주파수 Detuning 함수로서 위상변이 이 위상 변이는 주파수 Detuning차 $\Omega\tau = \pm 1$ 에 대하여 $\pm\pi$ 에서 $-\pi$ 까지 변화됨을 볼 수 있다. 이러한 위상변이가 링 발진기에서 2π 정수배의 왕복 위상변이를 필요로 하는 발진에 대한 원인이 된다.

II-3. 발진 조건

그림 2,b와 같은 반사형 단방향 발진기내에 발진 빔의 세기가 형성되면 발진세기의 이득이 포화가 되어 결국 정상상태가 된다.

정상상태시 발진조건으로 왕복 빔 크기 및 왕복위상도 최초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. 링 발진기에서 적절한 경계 조건을 적용하면 빔 세기의 변화에 관한 발진조건은 다음과 같다.

$$I_1(0) = R I_1(L) \quad (14)$$

여기서 L 은 상호작용 길이이고 R 은 미터 각각에 대한 반사를 줍니다. 발진 빔에 대한 위상에 관한 발진 조건은 다음과 같다.

$$\Delta\phi_i + \int k ds = 2N\pi, \quad N=\text{정수} \quad (15)$$

여기서, 적분은 광복 빔 경로 구간이다.

식(14)은 다음과 같이 GI에 대한 정의로 쓸 수 있다.

$$GI \cdot R=1 \quad (16)$$

Cavity-detuning Parameter $\Delta\tau$ 를 다음으로 정의한다.

$$\Delta\tau = 2N\pi - \int k ds \quad (17)$$

N' 는 $\Delta\tau$ 가 $-\pi$ 에서 $+\pi$ 사이 높이도록 한 정수이다.

이때, 위상에 대한 발진 조건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.

$$\Delta\phi_i = \Delta\tau + 2M\pi, \quad M = \text{정수} \quad (18)$$

다시 말해서, 발진은 캐비티 Detuning이 광굴절 위상 변이로서 보상될 수 있을 때 단지 일어날 수 있다.

식(16)의 GI에 대해 식(13)을 대입하고, 식(8)를 사용하므로 다음과 얻는다.

$$\Delta\phi_i = \frac{\tau'}{\tau} \log(R \exp(-\alpha L)) \quad (19)$$

순수 확산인 경우 $\Phi=\pi/2$ 인 경우 Φ 에 대한 식(4) 및 (8)을 이용하여 식(19)로부터 다음과 얻을 수 있다.

$$\Omega\tau = \frac{2\Delta\phi_i}{\alpha L - \log R} = \frac{2(\Delta\tau + 2M\pi)}{\alpha L - \log R} \quad (20)$$

식(13)의 GI에 대하여 식(16)을 대입하면 정상상태시 m 값을 구할 수 있다.

$$m = \frac{I_2(L)}{I_1(0)} = \frac{1 - R \exp(-\alpha L)}{R \exp(-\alpha L) - \exp(-\alpha L)} \quad (21)$$

m 은 정상상태시의 두 입사 세기이다. 식(21)로부터 임계 발진 조건과 I_2 빔의 전송도 T_2 가 거의 0으로 접근되는 단방향 발진 조건은 다음과 같다.

$$\tau L > \alpha L - \log R \quad \text{그리고} \quad \tau L > 6 \quad (22)$$

식(22)로부터 단일 방향으로 발진시킬 임계조건은 $\tau L > 6$ 임을 알 수 있고, 식(22)에 식(13)을 대입하면 유한 스펙트럼 영역을 얻는다.

$$|\Omega\tau| < \left(\frac{\tau_L - 6}{6} \right)^{1/2} \quad (23)$$

여기서 τ_L 는 $\Omega=w_1-w_2=0$ 일 때 이득이다. 이 식은 정상상태시 스펙트럼 영역을 정의해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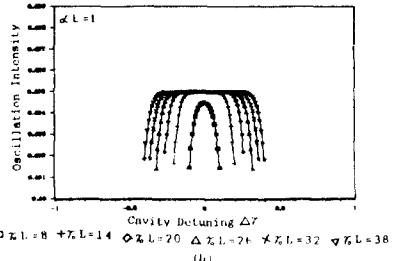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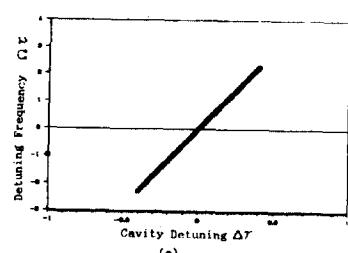


그림 5. 캐비티 Detuning함수로의 Detuning주파수와 세기

(a) Detuning 주파수

(b) 발진 세기

그림 5.a와 b는 캐비티 Detuning 함수로서 각각 주파수 Detuning과 발진세기를 보였다. αL 값이 매우 큰 값에 대하여 대부분의 캐비티 Detuning $\Delta\tau$ 에서도 단방향 발진이 일어날 수 있는 반면에 αL 값이 적은 영역에서는 캐비티 Detuning $\Delta\tau=0$ 부근에서 단지 단방향 발진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. 전송형 단방향 발진기와 비교할 때 반사형 단방향 발진기는 동일한 αL 에 대하여 캐비티 Detuning 혹은 전송형보다 좁은 영역에서 단방향 발진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.

III. 결론

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파하는 반사형 훌로그래픽 2광파 혼합을 이용한 단방향 링 발진 조건을 제시하여 발진 이론을 유도했다.

전송형 단방향 링 발진 이론과 비교를 하면, 두 형 사이 2광파 결합방정식이 다르므로서 광굴절 위상변이가 반대로 나타났고, 캐비티 Detuning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전송형은 Detuning 주파수가 감소하지만 반사형은 증가하였으며, 링 발진기 내에 형성되는 빔 세기는 서로 비슷하지만 전송형은 캐비티 Detuning $\Delta\tau$ 값이 큰 범위에서도 발진이 되는 반면, 반사형은 보다 적은 영역에서 단지 단방향 발진이 일어났다.

기존 레이저 매질을 이용한 링 발진기가 정확한 캐비티 길이를 요구한다면 광굴절 매질을 사용한 발진기는 임의의 캐비티 길이에서도 발진됨을 알 수 있다.

참고문헌

1. F. Laeris, Opt. Commun., 47, 387(1983).
2. P. Yeh, J. Opt. Soc. Am., B2, 1924(1985).
3. Amnon Yariv Opt. Lett., 10, 454(1985).
4. Sze-Keung Kwong Appl. Phys. Lett., 47, 460(1985).
5. P. Yeh, Opt. Commun., 45, 32(1983).